
보도자료

2010년 3월 1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 과장(☎750-2330)
디지털방송정책과 이상연 사무관(☎750-2322) syhylee@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난시청 해소 현장 방문

- 제주 동광리 마을 디지털TV 공시청시설 개통식 참석,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적극 추진 밝혀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 안덕면 동광리 마을'에서 열린 '디지털TV 마을공시청시설 개통식'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난시청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동광리 마을 디지털TV 공시청시설'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날로그 공시청시설을 디지털시설로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동광리 마을 주민(약 120세대)은 고화질의 선명한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주 안덕면 동광리 마을은 지형적 영향으로 방송전파 수신에 원활하지 못해 마을공시청시설을 운영하는 난시청 지역임

이날 행사에는 양조훈 제주환경부지사, 박영부 서귀포시장, 장성환 KBS 제주총국장, 동광리 마을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제주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방송은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는 문화혜택으로, 2012년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주 동광리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154개소의 농어촌 마을공시청시설을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을 KBS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2012년까지 총 506개소의 마을공시청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공시청시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공시청시설도 2012년까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디지털 시설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개통식에서 동광리 마을에 디지털TV 1대 및 디지털컨버터 30대를 전달하고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TV시청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붙임 : 마을공시청시설 개선사업 1부. 끝.

< 붙임 >

마을공시청시설 개선사업

□ 사업개요

- 난시청지역 중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벽지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아날로그TV 공시청시설(총 506개소)을 아날로그TV 환경에서 디지털TV 수신이 가능하도록 수신환경 개선

< 마을공시청시설을 이용한 난시청해소 개념도 >



※ 마을공시청시설 :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벽지마을에서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TV신호를 공동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수신설비를 말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날로그 마을공시청시설→디지털시설로 개선
 - 전국 506개 마을공시청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되 ①디지털TV 방송 수신가능지역으로 ②세대수가 많으며 ③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
- '10년 사업계획
 - 아날로그방송 마을공시청설비를 디지털설비로 교체
 - 방통위와 KBS가 50:50 비용분담
 - 농어촌마을공시청 신설 4개소, 개선 154개소 추진